

高麗梵鐘의 新例 (十四)

黃 壽 永

一九七二年 十月 그 사이 數年間에 조사된 新鐘資料를 모아 本誌 一三·四合輯호에 「新羅·高麗梵鐘의 新例」(十三)를 발표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전후 약 十년에 걸쳐 국내에서 새로 출토된 고려종의 新例를 중심으로 약 五十口に 달하는 적지 않은 遺品을 소개하여 왔다. 이같은 新例들은 따로 集成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既存例와 더불어 그 綜觀을 위한 작업이 점차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곳에 소개하려는 新例 二口는 모두 昨年末에 日本에서 다른 하나는 釜山에서 조사하였기에 이곳에 소개하여 두고자 한다. 그중 前者는 在日僑胞 鄭韶文씨의 소장이며 이미 坪井良平〔註〕씨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었다. 필자는 그 사실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坪井씨 論文에 아니보이는 사진만은 입수할 수가 있었다.

一、貞右十三銘 小鐘(日本 京都)

이종은 全高 五〇·四 cm、口徑 二七·三 cm、口緣厚 三 cm이다. 龍鈕에는 通式的 甬筒이 있고 그 頂上에는 三顆의 小珠가 있다(高 十五 cm)。鐘體上緣에 三角 立狀帶가 돌려 있는 것은 고려 後期の 양식을 따른 것이다. 上下帶에는 連珠紋이 있고 그 主紋은 草花紋이나 上下가 다르다. 乳廓은 네 곳에 있어 郭帶紋은 上帶와 같으며 안에 九乳를 넣었다. 그리고 이들 乳廓間 下部에는 交代로 圓形 蓮花紋의 撞座와 蓮花座에 跣座하는 飛天像이 各 二座씩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飛天像과 나란히 楊柳로 보이는 것이 서 있는 것은 따로 類例를 모른다고 하였다.

이종의 前面에는 다음과 같은 六行의 陰刻銘이 있어 귀중하다. 銘은 點刻으로 다음과 같이 坪井씨에 의하여 판독되었다.

貞右十三年乙酉正月日造

大良坪觀音寺鍾入

卅二斤匠七甫

東梁前長宋子

寺主大德保休

□主祗候同正□追善

貞右는 貞祐로서 金の 年號인데 그 十三年은 서기 一二二五年 고려 高宗 十二年에 해당한다. 大良坪은 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六 高敞縣 古跡條에 「大良坪部曲在縣南十五里」라고 보이고 있다. 卅二斤은 入重을 말하며 七甫는 匠人을 가르킨다. 貞祐의 鍾銘으로서 이종의 十三年이 最後이며 그 이후는 干支를 사용하였고 元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年號를 약 半世紀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坪井씨 註記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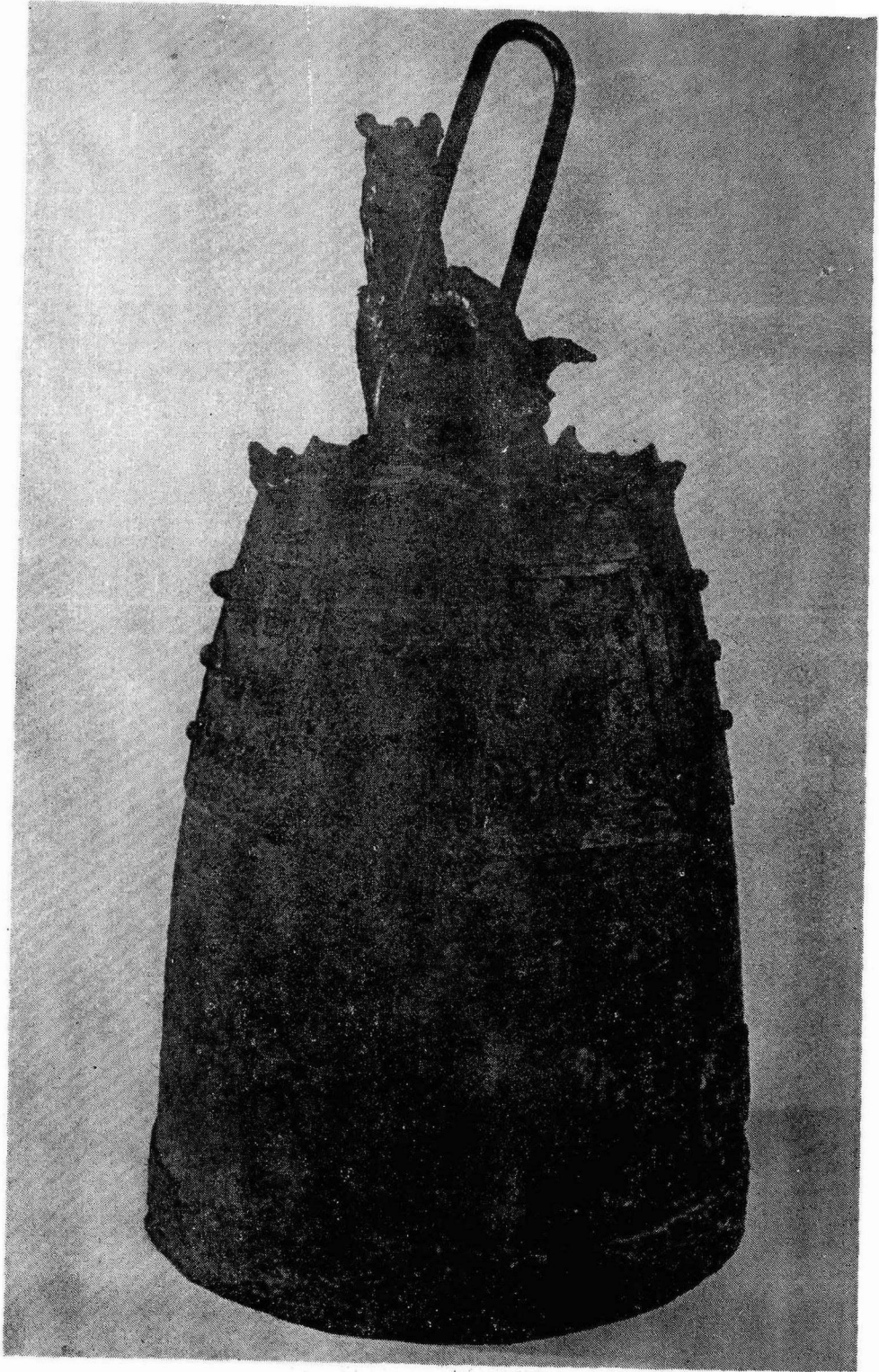
〔附〕京都市 某氏鐘·貞祐鐘과 같이 坪井씨가 소개한 小鐘으로서 無銘의 出土品이라 하였다. 全高 三一·四 cm、口徑 二一·七 cm、口緣厚 一·七 cm인데 通式을 지니고 年代는 十三世紀로 推定하고 있다. (註) 坪井良平·日本にある 朝鮮鐘「日本中の朝鮮文化」第十五號 一九七二年 九月

二 高麗 靑銅小鐘

通型的 高麗小鐘이면서 形態의 優美함과 各部 彫飾의 華麗함과 保存의 完全함에서 국내에서 近來 드물게 보는 新例라고 하겠다.

形態에 있어서 먼저 注目되는 것은 鍾頂部 특히 甬筒이 特大細長한데 筒身에는 唐草紋이 돌려 있으며 上端에는 花紋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이 甬筒과 어울려 긴 逆U字形의 雙龍이 前後 兩足を 갖추고 筒身에 걸쳐 있는데 또한 細部에 이르기까지 完全하다.

鐘身에 있어서는 上下에 帶文이 돌려 있는데 또한 身高에 비하여 넓다. 上帶는 밑에 一條의 珠文과 雙細線이 있으며 上緣은 아무런 裝飾紋이 없어 또한 無紋平坦한 頂部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優美한 唐草文帶가 돌려 있다. 下帶에는 珠文帶가 없고 波文이 點적으로 波頭를 高刻하면서 돌려 있는데 魚頭紋을 다섯 곳에 點刻하여 波紋의 變化를 보



貞祐十三年銘 銅鐘 (鄭韶文氏 所藏)



高麗青銅小鐘(金攄祥氏所藏)

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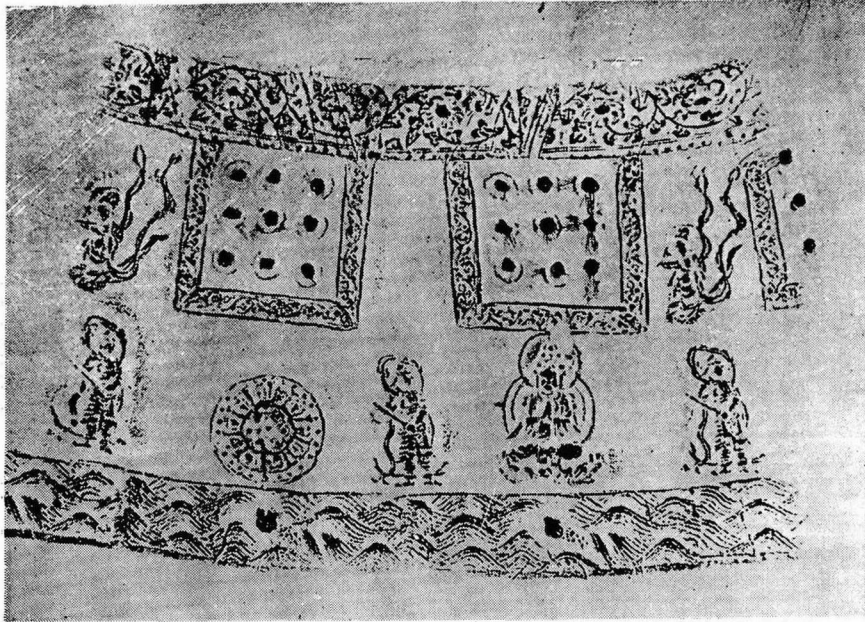
乳廓은 上帶에 連하여 四곳에 배치되었는데 細刻된 唐草文으로 둘러 고 그 안에 縱橫各三의 九乳가 둥근 받침위에서 半球形을 이루었으나 刻紋은 없다. 그리고 이같은 四乳廓 밑에는 下帶에 接하여 撞座와 菩薩坐像 各三座가 交代하면서 배치되어 있다. 먼저 撞座는 圓形으로서 外周에 珠文을 돌리고 그 안에 十瓣의 蓮花가 있고 子房에는 七顆가 있다. 그리고 菩薩坐像은 頭身光背를 지니고 高冠이며 通肩 合掌하여 仰蓮座에 結跏趺座하고 있다. 이 坐像은 분명히 菩薩像으로서 기왕에 간단하게 飛天으로 說明한 것은 是正되어야 하겠다. 하물며 이 鐘에는 따로 飛天이 있음에서 그 區別이 한층 明確하다.

위에서 설명한 各部의 形式과 彫飾만으로서 新羅나 高麗의 梵鐘으로서 具備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新鐘에 있어서는 그같은 通式以外에 他例에서 드물게 보는 彫紋이 있어 특히 注目되며 나아가 이 小鐘의 하나의 特異한 점이라 하겠다. 그것은 乳廓間地를 다시 利用하여서 두 곳 上部에는 飛天紋을 그리고 네 곳 下部에는 四天王立像을 배치한 手法이다. 그중 飛天은 跪坐하였으며 兩手로서 供食物을 들고 있으며 天衣 三條를 길게 뒤로 날리며 하늘을 나르는 形式을 보이고 있다. 四天王像은 甲衣에 執劍한 姿勢인데 四軀가 모두 同一하나 細部에 이르기까지 各樣과 같은 各部의 彫飾은 鍾體에 비하여 過多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 紋樣의 多樣함과 刻法의 優麗함에 있어 小鐘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하고 있다. 鑄法의 洗鍊됨이 또한 注目되는 바 있다. 鑄法의 洗鍊됨이 또한 注目되는 바 오랜 土中에서 전면에 靑綠의 녹이 고루 덮여 있어서 이종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近年에 多數의 小鐘이 收拾된 中에서 도 특히 優品이라 하겠다. 年代는 高麗中葉을 더 降下하지 않으며 서기 十二世紀경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出土의 經緯는 알 수 없는데 釜山 金渭祥氏가 一九七二年 春, 入手하여 所藏하고 있다. 곳곳에 붉은 녹이 있는 것은 이 종을 달기 위한 鐵索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全 高 三十三·五 cm (甬筒 高 十一·五 cm)
上 徑 十三 cm, 下 徑 十九 cm, 下 厚 一·八 cm

上帶幅 三·五 cm、下帶幅 三·八 cm

〔註記〕 新羅·高麗梵鐘의 新例(十三)(本誌 一一三、一一四號、一九七二年十月)의 附記에서 言及한 것이 바로 이 釜山鐘이다.
(一九七二年 十一月一日 釜山에서 姜友邦氏의 厚意로 調査함)



高麗 靑銅 小鐘 拓本